



순창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순창군 11개 읍면에서 활동중인 이장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제15회 순창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24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지역의원, 기관 단체장, 관내 이장과 배우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순창군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영)가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다트, 훌라후프 등 다양한 게임과 고리걸기 민속경기가 펼쳐졌다.

이어 진행된 화합한마당에서는 각 읍면 대표들의 장기 및 노래자랑도 펼쳐져 관내 이장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이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지역과 마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그간 지쳤던 마음을 맘껏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창군 이장단협의회는 경기장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 소독과 개인 위생용품 등을 배치하고 응급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등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전주 로타리클럽, 우수대학생 장학금 수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회장 문우진)은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정기모임 석상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 7명(클럽장학생 3명, 관명장학생 4명)에게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문우진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이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가계 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장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각자 목표한 바를 이루어 훗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전주 로타리클럽은 미래의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대학생 로타리클럽, 인터랙트 클럽에 4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재훈기자

“갯벌세계유산 보전본부를 고창의 품으로”

심덕섭 고창군수 릴레이 캠페인 참여 등 곳곳에 유치 목소리 커져

전북 고창군에 '한국의 갯벌' 연속유산의 통합관리센터 유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곳곳에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열원 현수막을 걸고, SNS에는 릴레이 캠페인과 고창으로 결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심덕섭 고창군수가 SNS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유치'를 염원하는 서명과 함께 인증샷을 올리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심 군수는 연일 국회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고창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의회, 전북도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창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고창군의회는 임정호 군의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5관왕에 빛나는 청정 고창갯벌에 세계유산보전본부를 세워야 한다"며 "고창은 세계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최적지다"고 강조했다.

앞서 만들갯벌축제 현장에서도 고창군 어촌계협의회, 고창갯벌축제추진위원회, 심원면 이장단협의회,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본부 고창유치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고창갯벌축제위원회 김충 위원장(고창군 수협조합장)은 "국내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지락을 비롯해 지주식립 등 갯벌이 가진 생태와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고창뿐이다"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추진

남원시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대상은 남원 거주 다문화가정으로 2년 이내에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한 가정 중 가정형편, 자녀수, 거주기간, 고향방문 횟수, 센터이용 횟수, 고향나들이사업 선발이력 등을 종합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정을 선발, 1가정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접수, 34가정이 고향나들이사업에 신청, 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편 등 7개 항목별 서류심사를 거쳐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3가정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 교통비 등을 지원, 올해 9월부터 12월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김\*\*씨는 "8명의 가족이 고향나들이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가지 못했는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되어 가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며 박찬 소감을 전했다.

김현옥 시 여성다문화 계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선정 가구가 적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향나들이 사업에 많은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백구면 소재 맥스원 이웃돕기 성금·물품 기탁

김제시 백구면 소재 (주)맥스원에서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삼푸·치약 20세트, 햄·참치 20세트와 함께 이웃돕기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였다.

농업회사 법인 (주)맥스원은 농약 및 농자재 유통회사로 특히 친환경 자재 판매에 앞장서고, 농업인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전양호 (주)맥스원대표는 "작년에 이어 나눔을 실천하게 되



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곤 백구면장은 "명절마다 기억해 주시고 선뜻 기부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나 관심이 필요한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된 성금과 물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배부되어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장혜림 대학원생, 항공우주공학회 '우수'



장혜림 대학원생 오임경 연구생

전북대학교 장혜림 대학원생(메카트로닉스공학)이 최근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 대학원생은 학부 연구생인 오임경 학생(기계설계공학과)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페인트 도장막을 투과할 수 있는 테라헤르츠 파를 이용, 구조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도장 두께 검출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페인트는 구조물의 부식 방지, 방수, 단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물에 도포되는데 두께가 너무 얇거나 균일하지 않은 경우, 혹은 벗겨지거나 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항공우주, 기계, 자동차 건축 구조물 등 다양한 구조에 페인트가 활용되고 있으나 도포된 전체 면적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기존 상황에서 비파괴적으로 넓은 면적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정읍 연지봉사대, 추석 명절 '사랑의 백미' 기탁

연지봉사대(대장 허종성)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랑의 백미'를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연지봉사대 회원 일동은 24일 연지봉 주민센터를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80포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받은 백미는 연지봉사대의 뜻에 따라 지역 내 저소득 세대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소중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허종성 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명석 동장은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연지봉사대에 감사드린다"며 "백미는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